■ *外高가 뭐길래* … 전남외고 들여다보니

'입학=명문대 진학'

진학률 일반 고교 훨씬 능가 … 기숙사 생활로 경쟁 유도

외국어고가 뭐길래 입시문제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학부모들은 '외국어고 입학=명문대학 진학'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12일 찾은 나주시 용산동 전남외국어고등학교(교장 최남희·이하 전남외고) 3학년 교실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에 한창이었다. 광주·전남 유일 외고로, 1993년 개교한 이 학교의 명문대 진학률은 타 고교를 훨씬 능가한다.

이날 현재 3학년 107명 중 일반대학에 16명이 수시합격했다. 경찰대·사관학교 등 특차대학에도 8명이 들어갔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학 진학률은 ▲2002년 40%(졸업생 111명 중 44명) ▲2003년 54%(111명 중 60명) ▲2004년 64%(103명 중 66명) ▲2005년 56%(106명 중 59명) ▲2006년 44%(117명 중 51명)으로, 2명 중 1명꼴이다.

이중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경찰대·사관학교·각 대학 의과대학의 진학률은 ▲2002년 22.5% ▲2003년 30% ▲2004년 38% ▲2005년 25% ▲2006년 16%다. 졸업생을 평균 110명으로 봤을 때 29명(26%)이 명문대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다.

전남외고의 경쟁률은 평균 3대 1. 보통 8~9대 1를 넘는 서울과 경기지역보다는 낮지만, 중학교 전체에서 상위 5등 내에 들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1년 학비는 기숙사 관리비를 포함해 450만원으로 전국의 29개 외고 중 가장 저렴하다.

현재 재학 중인 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 등 4개 과 345명 중 92%인 317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부친의 직업은 ▲일반 회사원 70명(20%) ▲사업 61명(18%) ▲공무원 35명(10%) ▲교사 32명(9%) 순이다.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38명(11%)이나 됐다.

학교 측 조사결과 지원동기는 '외국어를 활용한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26%(91명)로 가장 많고 ▲외국어에 흥미 25%(87명)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기대 18%(61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외교관(42명)·법조인(41명)·교사(28명)·언론인(27명) 등을 꿈꾸고 있었다.

프랑스어과 유민아(3년)양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자극을 받는 것 같다"며 "서로에게 신경을 써주고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 12일 나주 전남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영어과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대비, 마무리 수업을 하고 있다. /나주=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어르신 글짓기 한마당 13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 2회 어르신 글짓기 한마당 대회'에서 백발의 수험생들이 시험지에 글을 쓰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남구청이 지원하는 문해교육(文解敎育)을 받고 있는 59~93세까지 노인 155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전원의 글은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풍피해복구비 수억원 횡령

흑산수협 간부 등 2명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자연재해 복구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신안 흑산수협 유통판매과장 박모(44)씨와 전복 양식업자 장모(50·신안군 임자면)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해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흑산도에 있는 자신의 우럭 가두리 양식장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어 '수협 금융거래 전산망'을 이용해 매입전표 등 관련 서류를 가짜로 작성한 후 우럭 250만 마리(시가 5억원 상당)를 매입, 양식장에 입식해 피해를 복구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장씨도 피해 복구비 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청은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민과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 유착 등 비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국민대회 시위 주도

1명 구속·10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범국민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대학생 오모(23·전남대 4년)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무진로에서 상경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10여 명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포외고 입시 문제 받은 업자 체포

학원강사 "500만~1천만원에 유출"

외국어고 입시문제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포외고 교사로부터 유출 문제를 넘겨받은 모 교복업체 대리점주 박모(4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납품업자 박씨는 지난달 30일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이메일로 출제 예정 문제 3~4매(A4용지) 분량의 문항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딸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에 합격했다.

박씨는 교사 이씨가 김포외고 학생부장이던 때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며, 지난해 280여 벌, 올해 500여 벌의 김포외고 교복을 공급했다.

경찰은 또 구속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41)씨가 교사 이씨에게 처형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돕고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자"며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서울 지역 모 학원 강사 A씨는 13일 서울·경기지역 7개 외고에서 500만~1천만원에 문제가 유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신생외고일수록 심한 편"이라며 "학원 측은 문제를 사전 입수한 외고에 지원토록 수강생들에게 권유하는 공생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GS 칼텍스 해고자 2명 49m 송전탑 '농성'

13일 새벽 3시께 GS 칼텍스 여수공장 해고자 이모(42)·박모(44)씨 등 2명이 여수시 석창 사거리 인근 49m 높이의 초고압 송전탑에 올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씨 등은 송전탑 정상 부근 39m 지점에 합판을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송전탑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회사를 대신한 GS 칼텍스 노조와 협상을 벌였으나, GS 칼텍스 측이 '원직 복직'을 허용하지 않아 결렬돼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면서 "복직 등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송전탑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전탑은 34만5천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조속히 송전탑에서 내려와 달라"고 수차례 설득하고, 인근에 경찰과 에어백·매트리스 등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주택가 골목길 강도

고교 3년생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주택가 골목에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광주 모 고교 3년 A(18)군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2범으로 보호관찰 중인 A군은 이날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정모(여·37)씨를 위협한 뒤 현금 2만원이 든 핸드백을 강탈하는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다 격투 끝에 붙잡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엉터리 해외 학위로 사이버大 강의

쌍나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사실상 돈만 내면 취득할 수 있는 해외 대학 학위를 이용해 사이버대학 2곳의 강사로 채용된 스피치 강사 문모(42)씨를 불구속 기소.

○…문씨는 2005년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한 미국의 '퍼시픽예일대학'에서 받은 스피치학 석·박사 학위 증명서를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사결과 문씨에게 학위를 준 '퍼시픽예일대학'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출석이 인정되고, 영어 강의 수강이나 시험 없이 한국어로 간단히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를 주었다는 것.

○…이 대학은 돈만 내면 학위를 만들어 주는 '학위제조공장'(Degree Mill)으로, 지난해 7월 미국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받았었다고. /연합뉴스